

통신산업에서의 원가회계 및 회계분리 개선방안

송연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cost accounting and accounting separation on telecommunication

Song, Yeonkyung
ETRI
syk63213@etri.re.kr

요 약

최근 통신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요금 및 접속료 산정에 원가정보가 되는 회계분리의 규제 및 기준이 역사적 원가회계에서 현행원가회계 개념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 현행원가 회계정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원가회계 및 회계분리의 개념들을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통해 최근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회계분리 규칙 및 기준을 제개정할 때 고려해야 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 론

통신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규제기관은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사업자의 원가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규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를 위해 원가정보를 산출하는 통신회계제도가 회계분리이다. 회계분리된 원가정보는 요금조정, 접속료 산정, 보편적 서비스 손실 산정, 설비제공대가 산정 등 다양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회계분리 원가정보의 기초는 역사적 원가에 의한 완전배부원가제도였다. 하지만 최근 EU, 영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완전배부원가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현행원가나 LRIC(장기중분원가)로 원가개념을 전환하고자 하는 활동들이 활발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4년부터 접속료 산정방안의 하나로 LRIC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원가주의에 기초한 통신요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회계분리 및 원가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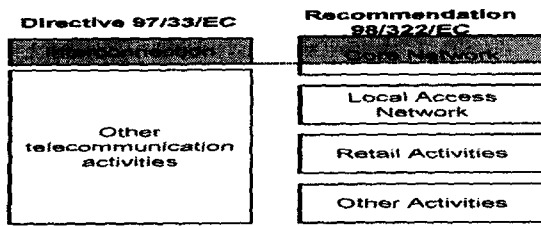
들을 국내외 통신규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회계분리제도

회계분리의 주요 목적은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간 상호보조를 확인 및 방지함으로써 원가 투명성과 비차별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즉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결정 등을 위한 기초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개별서비스 또는 범주별로 수익 및 원가를 집계, 배부하는 과정을 말한다. 통신사업자는 역무별로 회계분리한 영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규제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규제기관은 보고된 원가정보에 기초하여 다양한 규제를 수행하게 된다.

EU 법령에 의하면 SMP 사업자는 상호접속활동과 다른 통신활동을 회계분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후 Recommendation 98/322/EC는 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크게 core network, local access network, retail

및 다른 활동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림1) EU 규정에서의 회계분리 정의

또한 EU는 회계분리를 위한 기준으로 현행원가회계(CCA)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회계분리는 형태별, 기능별 분류를 거쳐 최종적으로 역무별 분류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유선망의 경우 전기통신사업과 비전기통신사업으로 나뉘고 전기통신 사업을 5개 역무 27개 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 그에 비해 이동망의 경우 분류가 광범위하므로 좀더 세부적인 분류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회계분리의 원가기준으로 여전히 역사적 원가를 사용하고 있으나 좀더 합리적인 원가산정을 위해서는 현행원가 정보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3. 원가회계 개념

회계분리 및 요금산정에 사용되는 원가 개념은 다양하다. 먼저 원가모델을 구축할 때 사용하는 접근방법에는 두가지, Top-down과 bottom-up이 있다. top-down 접근방법은 회계학적 접근방법으로 회사의 계정에서 출발하며 bottom-up 접근방법은 공학적 방법으로 가입자와 트래픽 관점에서 기대되는 수요와 함께 출발하는 원가모델로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모델에 기초하여 관련원가와 망 디자인을 평가한다. bottom-up 방식은 효율적 사업자를 가정하기 때문에 선호되지만 정보의 부족 및 너무 많은 가정에 의해 모델이 결정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 두가지 방법을 혼합한 hybrid model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을 구축할 때 사용되는 원가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역사적 원가 또는 현행원가 회계

통신망은 범위 및 규모의 경제로 특징지워지므로 규제자와 정부는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망의 구축을 피하길 원한다. 또한 규제자의 역할은 경쟁적 시장을 모방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진입자가 설비를 구축 또는 임대할 것인가의 의사결정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호접속료가 현행원가에 기초해야 한다고 의견이 많다. 과거 대부분의 원가모델은 역사적 원가회계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한 모델은 기존 회계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역사적 정보를 사용한다. 하지만 역사적 원가회계가 자산의 취득원가나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반면 현행원가는 경쟁적 시장에서의 가격 및 현재 기술을 반영한다. 모든 자원이 현행원가로 재평가되면 자산은 MEA(최신동등자산) 방법론을 사용하게 된다. 현행원가에 대한 두가지 대안적 접근방법은 자본금 처리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은 손익계정에서 이익측정 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의 자본과 보유이익 사이의 배분을 위해 중요한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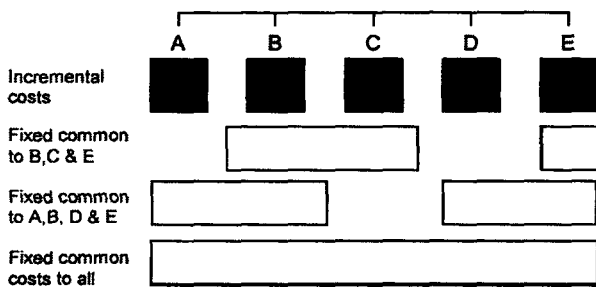
① 운영자본유지(Operating Capital Maintenance) 개념 : 생산능력에 의해 자본을 유지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운영사업자의 운영능력을 고려한 개념이다. 이것은 특정 회계연도 기말의 운영능력과 기초의 것이 동일하기를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자산의 가치평가를 위해 특정 인플레이션 지수를 적용해야 한다.

② 재무자본유지(Financial Capital Maintenance) 개념 : 회사의 재무자본에 의한 것으로, 화폐단위에 의해 자본을 유지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즉 투자자가 투자한 투자자본이 화폐단위의 관점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현행원가회계에서 FCM은 실질재무자본을 유지하는 것으로 운영사업자의 재무자본이 현행가격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 실제원가 대 미래지향적 원가

요금은 실제원가(역사적 원가 또는 현행원가)에서 유추되거나 미래지향적 원가를 사용하여 결정한다. 미래지향적 모델의 목적은 요금에 사용될 첫 연도와 마지막 연도 사이의 갭의 영향을 중립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EC는 1998년 1월 "미래지향(LRAIC)의 사용은 역사적 원가보다 현행원가의 활동기준 배분을 사용한 원가회계시스템을 의미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래지향적 원가인 장기평균증분원가(LRAIC)는 장기간의 증분원가를 말한다. 증분원가는 실질과 추상적 증분에 의해 생산량이 증가 또는 감소할 때의 원가차이를 측정한다. 장기간 모든 원가는 생산용량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변동으로 취급된다. 원가-조업도 관계 곡선에서 보면 LRAIC는 증분에 대한 단위의 평균 원가가 된다. 증분원가는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증분원가의 총합은 기업에 의해 발생된 총원가와 동일하지 않을 것이며 증분원가는 회수될 필요가 있는 추가원가만을 나타내므로 고정공통원가는 고려되지 않는다. 그래서 LRAIC는 결합 및 공통원가를 회수하지 않아 마크업의 형태가 요구된다. 실질원가는 장기증분과 관련된 원가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LRAIC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EC는 Recommendation 98/195/EC에서 상호접속료에 LRAIC의 사용을 추천하고 있다.



(그림 2) 증분원가

Andersen의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EU 회원국의 경우 현행원가가 상호접속료와 LLU의 원가기준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반면, 임대라인과 음성전화에 대해서는 다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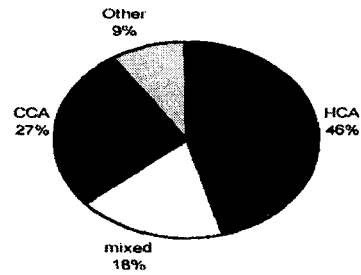
국가	접속	회선임대	음성전화	가입자망 공동활용
벨기에	FL-CCA	HCA	HCA	-
덴마크	HCA	HCA	HCA	HCA
독일	FL-CCA	HCA	-	FL-CCA
스페인	CCA	CCA	CCA	-
프랑스	FL-CCA	FL-HCA	FL-HCA	FL-CCA
이탈리아	FL-CCA	FL-HCA	FL-HCA	FL-HCA

국가	접속	회선임대	음성전화	가입자망 공동활용
네덜란드	FL-CCA	FL-HCA	FL-HCA	FL-CCA
오스트리아	FL-CCA	HCA	HCA	FL-CCA
포르투갈	FL-CCA	HCA	HCA	-
스웨덴	FL-CCA	FL-HCA	-	FL-CCA
영국	FL-CCA	FL-CCA	FL-CCA	FL-CCA

자료 : ANDERSEN, 2002.7.3.

(표1) 유럽국가의 원가개념 적용 현황

또한 회계분리에 사용된 원가개념을 조사한 결과 많은 국가들이 회계분리 시스템의 원가 기준으로 역사적 원가회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7%정도가 현행원가를, 18%는 현행원가와 역사적 원가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회계분리를 위해 사용된 원가기준

4. 국내의 사례

(1) 영국

BT는 1984년이후 Condition 78하에서 현행원가기준으로 연간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요구받았다. Condition 78의 목적은 BT의 불공정한 상호보조, 부당한 차별 또는 선호를 막아 상호접속과 다른 표준서비스 요금이 원가로부터 합리적이고 투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Oftel의 관점에서 현행원가회계는 가격이 경제적원가 접근방법으로 행해지며 그러한 현행가격은 서비스 공급자의 구매의사결정을 확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의 원가기준이라고 보았다. 현행원가 재무제표는 면허에 규정된 각 비즈니스별로 준비하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의 활동별로 분류한다. BT는 FCM 개념을 사용하여 현행원가를 측정한다. 유형고정자산의 경우 NRC(순대체원가)와 동일한 가치로 본

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총대체원가로부터 유추되며 새로운 자산개념으로 현행구매가격 또는 동일한 서비스 잠재력을 가진 MEA(최신동등자산)가격이다.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① 기존기술

자산이 직접 대체원가기준으로 재평가되면 이때 대체원가는 지수화나 절대적 가치로 평가한다. 지수화는 기술변화가 적은 자산에 적절하지만 적절한 지수산정에 어려움이 있다.

② 최신동등자산

기술변화의 상황에서 대체원가를 최신동등자산 원가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BT는 가치평가를 위해 3년간의 예측치를 사용하였다.

③ 낮은 가치/짧은 수명기간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 및 짧은 수명을 가진 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계산하고 재평가하지 않는다.

(2) EU

EU법령에 상호접속료와 원가회계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각국 규제당국은 현행원가와 활동기준회계에 기초한 새로운 원가회계시스템을 기존사업자가 실행하도록 권고, 의무화하였다. EU는 FCM이 현행원가의 자본유지 개념으로 우수하다고 본다. OCM 개념은 적절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안으로 적당하지 않다. EU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원가회계 및 회계분리 실행을 best practice로 간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래지향적 개념인 LRIC를 적용한 원가모델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요금산정시 효율적 사업자의 미래지향적 원가개념에는 결합원가 및 공통원가가 제외되어 이를 회수하기 위한 마크업이 요금에 포함되기도 한다. 요금원가 산정은 각국 규제자마다 다소 해석이 다를 수 있으며 몇몇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격 = 비용 + 마크업
- 가격 = 비용 + (WACC * 순장부가치)
- 가격 = 원가 + 마크업 + (WACC * 순장부가치)
- 가격상한 이하 가격

(3) 한국

우리나라의 현행 회계분리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고 있으며 현행원가에 대한 정보를 기존 사업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2004년부터 실시되는 장기증분원가 방식에 의한 접속료 산정시 많은 현행원가 자료의 부재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회계분리 기준상 망세분화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정의 및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있다. 음성과 데이터의 회계분리도 이론적인 지침에 지나지 않아 실무적용상 임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또한 유선전화의 경우 역무별 분류가 세분화되어 있으나 이동전화의 경우 분류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좀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회계분리 및 원가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

5. 결론

최근 통신환경은 유무선간 통합 및 대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회계분리 규칙의 적용은 사업자들간에 차별을 유발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운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유무선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회계분리 및 원가회계 규칙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재정립을 통한 효율적인 원가정보는 바람직한 요금 및 접속료 산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세계적으로 회계분리 및 요금산정을 위한 원가기준들이 역사적 원가보다는 현행원가 회계에 기초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통신환경 및 규제의 변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역무 분리 및 세부절차 배부기준 등에 현행원가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역사적 원가회계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 참고문헌

[1] ACCC, Accounting separation regime, 2003.7.
 [2] Andersen,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cost accounting methodologies and accounting separation, 2002.7.3.
 [3] 박준호, 회계분리의 타당성 및 향후 방향, KT경영연구소, 2002.12.